

##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태평양회의 참석(1925년)을 전후한 조선과 일본과 세계에 대한 인식

이은선 (안양대학교 신학과 교수)

오늘은 고하 송진우 선생님 131주년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송진우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방향에서 근대 개혁과 신국가 건설을 추진했던 민족운동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다. 송진우는 1920년 4월 1일에 창간된 동아일보에서 1921년 9월에 사장이 되어 1920년대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한 민족주의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송진우는 1925년 7월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 민족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6월 11일에 출국하였다. 그는 하와이 가는 길에 “포와 가는 길”이라는 글을 4회에 걸쳐 연재하였고, “태평양회의에 11일간의 양상(洋上)생활”이란 제목으로 3회에 걸쳐 기고하였으며, 팔린톤 총독의 환영사, 각국 대표 연설, 조선대표 연설과 태평양회의 영구기관 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4회 기고, “각국 명사의 조선에 대한 의견”을 6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논설을 연재하였다. 그래서 오늘 고하 송진우 선생님 탄생 131주년 추모강연에서는 이 태평양 민족회의를 전후한 송진우 선생님의 조선과 일본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송진우의 신자유주의 사상

먼저 1920년대 송진우가 가지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사상과 자치운동을 통한 독립추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20년대 송진우의 사상은 그가 1910년대 일본에서 유학하여 와세다대학 예과와 메이지 대학 법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다이쇼(대정) 민주주의의 체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였다. 송진우는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1910년대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다이쇼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였다. 다이쇼 민주주의는 이미 독점자본의

제한과 민중 생활 보장을 핵심으로 한 19세기 말 영국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일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과 문제점과 함께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이론적 모순과 페이비언 사회주의로 나타난 관료적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와 구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위에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제한을 가하고 부의 공정하고 합리적 분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민대중의 직접 참여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국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개혁적 사상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조화와 공동선을 추구하고, 급격한 혁명적 변혁 대신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 제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자유주의의 원리를 유지한 채 사회주의의 윤리를 결합한 중도적 이념이라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내적 이념이었다.

송진우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했는데, 1925년 1월 12일부터 15일에 4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사설로서 발표한 「자유권과 생존권」 제하의 그의 논설에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송진우는 인류의 진보가 19세기 자유권의 발전시대로부터 20세기 생존권의 확충시기로 들어섰다고 하면서, 19세기 자유권이 “정치적으로는 모든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생활상 기회균등을 파괴하였으며, 계급적 관념을 도발케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자유권 발전의 남아 있는 폐단(餘弊)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사회 최후의 생존권이 절규되게 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때문에 “현대의 자본계급의 독점된 경제적 권리가 생존권의 각성에 의하여 평균적으로 분배될 것도 必至의 운명”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 위에서 송진우는 “자유권은 정치적 생존권이며, 생존권은 경제적 자유권”이라 하며, “자유권이 없는 곳에 개성이 확충될 수 없으며, 생존권이 없는 곳에 평등적 문화를 완성할 수 없다”고 하여 “자유권과 생존권이 表裏가 될지언정 背馳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並行이 될지언정 相悖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후반 들어 노정된 자본주의 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유와 민중의 생존적 권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 것인데,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진우의 이 사설은 그의 사상 속에 신자유주의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송진우의 자치운동을 통한 독립추구

그와 동시에 이 시기에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치운동을 통한 독립의 추구였다. 지금까지 1920년대 자치운동에 대해 일본에 타협적인 성격을 가

진 것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920년대의 송진우의 자치운동에 대해 동화형 자치운동인 참정권 운동(각파유지운동)과 구별되는 분리형 협력 운동이란 평가가 있다. 독립운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저항운동이라는 것이다. 분리형 협력 운동은 일본이 외교, 군사를 담당하고 우리나라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운동 혹은 내정독립운동을 말한다. 그렇지만 1920년대 송진우가 제시했던 자치운동은 독립을 목적으로 한 자치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한 평가이다. 그가 일제의 검열을 받는 신문지상에 발표할 때, 독립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치운동이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가 사장으로 있던 동아일보는 1920년대 초부터 제1차 대전 이후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일어났던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과 자치운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동아일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던 것은 영국과 타협하다가 몰락한 아일랜드 민족당이 아니라 1922년에 자치운동을 통해 독립을 달성했던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분석이었다. 동아일보는 전투적 민족주의 정당의 성격을 갖는 신페인당 내 온건파의 현실주의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페인당은 자치운동을 인정하겠다는 영국의 선거에 참여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한 후에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자치권 안에서의 독립을 성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진우가 구상했던 자치운동은 궁극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자치운동이었다. 그의 자치운동이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동아일보가 일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참정권 운동이나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친일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였고, 일제가 추진하던 그러한 참정권 운동에 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의 사상적 조류를 크게 동화주의, 자치주의(내정독립론), 독립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하면서 동아일보와 동명을 독립주의의 대표적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독립주의와 자치주의를 구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들은 별개의 정치세력으로 존재했다.

그는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도 우선 제1차 세계 대전이 세계에 기여한 바는 침략적 군국주의인 독일과 러시아의 붕괴라며, 민족운동에 있어 발칸반도 국가들의 독립, 폴란드의 독립, 핀란드의 독립, 이집트의 독립, 아일랜드의 독립이 속속 완성되었고, 인도의 ‘비협동운동’과 필리핀의 독립운동도 갈수록 맹렬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송진우는 1920년대 전반에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곳곳에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되던 독립운동과 자치운동을 주목하며 독립을 지향하는 자치운동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에서 하와이의 범태평양 민족회의 참석 후에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아래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를 분석하며 답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그는 3·1운동을 통해 건설하려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의 국가로 이해했다.

둘째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태평양 시대가 열리고 있던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곤경의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았다.

셋째로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 속에 우리가 단결하여 내부의 힘을 길러 민족의 자유, 생존,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3·1운동의 실패의 원인이자 민족운동의 부진의 원인으로 중심세력의 부재를 인식하고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 3. 민주공화제를 추구하는 3·1운동 정신의 계승과 발전

첫째, 송진우는 3·1운동을 재평가하면서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논하였다. 송진우는 현상운, 최린, 최남선 등과 함께 3·1운동의 기획과 점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송진우는 3·1운동으로 기소되어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른 뒤에 1920년 8월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는 3·1운동에 대해서 근대 사회의 이념과 공화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우국지사적 운동에서 사회적, 경제적 토대를 갖는 민족운동으로 변화하는 일대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중심세력의 조직적 기반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상당히 길게 3·1운동에 대한 자신의 재평가를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서 두 가지 점이 주목되는데, 첫째는 4000년간의 전통적 동양적 생활양식과 정치적 근왕주의(왕당파)를 타파하고 민족적 자존(민족자결주의)과 인류적 공영의 정의를 내세우는 점이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전통적인 국왕 중심의 질서를 타파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상 및 공화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3·1운동을 해석하는 관점을 나타낸다. 둘째는 3·1운동을 우국지사들의 명망가 중심의 의병운동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이 주도적으로 일어난 대중정치운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송진우는 제일 먼저 조선의 장래에 대해 논하면서 국왕 중심의 전근대적인 질서를 벗어나 조선 민족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는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첫째로 우리나라의 주체는 왕조가 아니라 조선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4000년간 역사적 변천과 정치적 흥체가 반복무상했으나, 조선인의 조선이라는 관념은 없어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신라, 고려, 조선의 멸망도 또한 그 당시의 왕위교대의 흥망변천에

불과했으니, 조선을 구성했던 왕조는 망해도 조선 민족의 문화와 혈통이 보존되는 한 조선은 보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멸망을 비롯한 역대 왕조의 변천은 자체의 정치적 흥망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조선 민족 자체의 전체적 멸망, 근본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 민족을 국가 생존을 구성하는 근본 단위로 보았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왕조의 흥폐는 정권투쟁의 수단방법에 불과하였고, 조선민족 전체의 문화 및 생활에 들어서는 직접적인 변화와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역대왕조가 항상 민족 생활의 토대에서, 또는 민중 생활의 발전에서 정권을 운용하며 경륜을 실시하는 것보다 왕가 자체의 발전 또는 정권의 유지의 목표에서 정치적 이상이 국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역대왕조의 흥폐가 일반적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상 이해의 감수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떤 왕조에 대해서는 그 포학무도의 정치적 변혁을 기대하였던 적도 없지 아니하였다.

최근에 서세동점의 시대적인 변화를 읽고 우리나라의 일대변혁을 피하려 하였던 것이 갑신정변이었으나 극소수의 각성으로써 4000년래의 굳어온 민족 전체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일시에 개혁하려 하였던 것으로, 무리였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는 갑신정변이 실패했지만 왕정을 타파하고 근대국가를 세우려고 한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후에 동학당을 중심으로 민중적 반란이 일어났으나 이 또한 쇠국과 양이의 구사상에서 그 운동의 배태가 생겨난 결과로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었을 뿐 국민 자체에 대해서는 수확이 없었다. 그 이후에 경술합병의 국치를 당하였는데, 그러나 조선민족은 다시 현대문명에 대하여 경이의 눈을 뜨고 동시에 민족적 의식을 다시 발견하여 결국 3·1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3·1운동은 4000년간 지속하여 온 동양적 생활양식을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근본적으로 국민적으로, 파괴 건설하려는 내재적 생명의 폭발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역사에 있어서 처음 보는 운동인 만큼 그 의의가 심히 크고 그 관계와 영향이 중차대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혁과 전란은 지배계급의 정권 쟁탈의 변혁이 아니면 중국중심의 존주양이(尊周攘夷)의 사상에서 배태되어 출발한 것이었으나, 3·1운동은 사상의 기저가 세계적 대역론인 민족적 자존과 인류적 공영의 정의 인도의 관념 하에서 일제의 탄압 하에서도 전국적으로 국민적으로 일어난 조선민족의 혁신운동 사상이다.

이러한 조선의 혁신운동의 기원은 현대문명을 긍정하고 민족적 복리를 기도하는 점에서 기인한 갑신정변이다. 그와 함께 조선민족의 급격한 충동을 일으켜 가속의 각성을 촉진케 한 것은 경술의 대변란이었다. 3·1운동의 기원

은 조선 민족이 경술대변란을 당하여 회심반성의 기회를 가져 그 이래 10년 동안 사회적 세포인 개인(개성)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 것이었다. 일본 사내 총독의 강압적인 헌병통치도 4000년간 훈련된 민족적 정신을 파괴하기에 너무나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는 민족의식을 환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와 함께 일반적으로 보급된 신식교육은 신문명의 긍정과 국민적 각성을 비상하게 촉진하였었다. 그리하여 무수한 세포의 변화가 발생하는 동시에 전체 조직의 변동이 생기는 것과 같이 사회조직의 토대가 되는 허다한 개인(개성)이 근본적으로 개혁 각성이 되는 동시에 전체 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난 것이 3·1운동이다.

3·1운동이 미국 선교사의 교사라거나 천도교 일파의 선동이라는 것은 조선민족의 정신과 조선 사회의 사정을 몰각한 단견이요, 조선 민족의 내재적 생명이 세계적 신문화에 접촉되어 폭발된 일대 각성의 소리인 것이다.

송진우는 이와같이 당시의 민족운동을 제1기의 종교적 배타운동의 갑오동란(동학난), 제2기의 정치적 왕실중심사상의 의병운동, 제3기의 민족자유의 3·1운동으로 나눈다. 그리고 앞의 두 운동은 정치적 사상과 논리적 가치가 도저히 현대의 신사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민족 자유의 3·1운동은 동기와 사상이 1) 내적으로 민족적 복리를 기도하는 점에서 2) 외적으로 세계적 사조에 조응하는 점에서 설령 일시적으로 완벽의 공을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조선 민족의 양심적 발동으로 보아서 또는 도덕 인류의 사상상 공명으로 보아서 확실히 도덕적 승리인 것이다.

송진우는 갑신정변 이후 10년을 주기로 사회변화를 위한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이제 3·1운동 이후 1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니, 새로운 사회변화를 위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조선민족은 교육적 각성과 경제적 의식 각성이라는 국민적으로 새 기운과 새 빛을 보았다. 3·1운동 이후 첫째로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높아졌으며 민족운동이 경제적 의식 곧 생활의 토대 위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것은 확실히 일대 진보이다. 경술사변 이후로 보통교육의 보급으로 3·1사건의 자주적 대변동이 야기되었다면, 3.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회조직의 일대 변동이 발생할 것은 국민의 지식 정도가 더욱 진보하고 보급될수록 사회조직의 변화가 더욱 빈번하여 갈 당연한 진화의 법칙이다. 송진우는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운동을 추진하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로 경제적 의식을 갖추어 그 사회적, 경제적 토대가 취약한 우국지사적 정치운동에서 사회적, 경제적 토대를 갖는 민족운동, 다시 말하면 조선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계층의 기반에 근거한 운동

으로 변화하는 일대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일대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평가라 할 수 있다. 그가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 3·1운동을 바라본다는 것은 갑신정변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송진우는 3·1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1922년 개벽에 게재한 “무엇보다 힘”이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지내 간 삼일운동의 실제적 경험을 고찰하여 보아도 명료할 것이다. 선전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사상이 박약한 것도 아니지만은 최후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 대세의 관계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나, 이 운동을 통일 계속할만한 중심적 단결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민족운동을 추진해 나갈 중심적 단결력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송진우는 1920년대에 민족운동을 추진해 나갈 중심세력 내지 중심적인 조직을 형성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4. 세계정세 분석 속에서의 일본의 위치

둘째로 그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위치에 대한 평가이다. 그는 당시의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조선의 사회적 변혁과 세계대세의 추이 및 동양 각국의 정세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4, 5년 안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적 풍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을 둘러싼 미국·일본·소련의 각축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모범국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충돌로 발전할 것이나, 그 전단계로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논설은 한국 문제도 이때에 결판이 날 것임을 시사하면서, 당면과제로 사상적 수련과 민족적 단결을 강조했다.

과거 일본은 영일동맹을 국제외교의 중추로 하여 동양 평화의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서 조선을 병탄을 단행하고, 더 나아가 영국과의 협조 아래 중국의 이권을 양분하여 농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던 미국이 기회균등과 문호개방주의를 제창하게 되었다. 1925년 범태평양회의를 개최할 당시 미국의 배일적 감정은 바로 당시 일본의 이러한 방약무인한 침략정책의 결과이다. 한국 대표들은 1924년 5월에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이민을 금지하는 미국의 새 이민법(배일이민법)개정 이후의 미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송진우는 일차 대전 후에 군국주의의 발흥으로 민족자결주의가 후퇴하기도 했으나, 반드시 그 이상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레닌의 사회주의가 실현되었고, 타면에 있어서는 독일의 굴종으로부터 인도적 견지에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격렬한 변화는 반동적 변화를 불러와서 국제연맹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세력인 소련을 대적하기 위하여 노령의 서백리아 방면에서 연합의 군대가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4, 5년간의 잠깐 동안의 반동이 있지만, 세계 인류의 대여론, 대이상에 기초한 민족자결주의와 실현은 저지당하지 않고 전진하여 가는 것이다.

반동적 분위기가 있지만 민족운동에서 파이간(발칸) 반도의 다소제국의 독립, 파란(폴란드)의 독립, 애란(아일랜드)의 분리가 계속 완성되었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대전란을 한 번 지난 후 소련의 완성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노동문제가 중심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국의 정계가 점차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회전할 징조가 현저한 것이 현하의 정세이다.

송진우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레닌의 사회주의가 제창되는 가운데 국제연맹이 후퇴하였지만, 그러나 민족자결주의의 이상은 실현되어 갈 것으로 보았다. 왜 그런가? 군국주의의 붕괴가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본도 사회주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1925년에 보통선거가 실시되었고, 군국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인류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것은 침략적 군국주의의 붕괴이다. 이로 인하여 군국주의의 쌍벽인 독일과 러시아의 붕괴가 완성되었다. 군국주의 일본의 사정은 어떠한가? 구미대전 당시로부터 파리강화회의의 전후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의 전성시대였으며 5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시기였다. 그렇지만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산둥반도를 조차하여 여러 이권을 중국에 요구한 일본의 21개조는 중국인이 절치의 한을 품게 하였고 서백리아 출병은 막대한 전비가 들게 하였으며, 영미의 제휴로 워싱턴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영일동맹이 해체되었고 군비제한으로 군국주의의 수족을 절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동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내정은 군국주의를 유일한 신조로 신봉하는 일본사회는 세계적으로 군국주의가 붕괴되는 동시에 일대 공포가 생겨나 일대 태풍이 불어 닥쳤다. 대중외교 실패와 러시아 출병의 실패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항의 기세가 날마다 치열해지고, 자본주의가 발흥하면서 사회주의 수입이 가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보통선거가 단행되었다. 보통선거 도입 후 과연 일본이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의 분기점이 되는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아마 이 때 송진



우는 일본에서 노동자들의 세력이 확대되어 군국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세력은 충돌할 것인데, 그보다 먼저 미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다. 세계대세의 조류는 확실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 방면으로 이동하여 오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20세기에 태평양을 둘러싸고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소련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불원한 장래에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협조할까? 충돌할까?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제일 딱하고 애처로운 경우는 일본의 현상이다. 미국과 자본으로 경쟁할 능력에는 못 미치고, 세계의 난봉을 하는 소련과 제휴하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의 자본적 제국주의는 일본과 이민문제로, 중국문제로 충돌하여 반일의 도가 더하며 충돌의 기가 촉진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 면에서 일로조약이 성립되어 있으나 입국의 기초와 주의가 근본적으로 상호 용납하지 못할 관계에 있는 이상에는 충돌의 위험성은 피할 수 없는 형세이다.

구미열강 가운데 중추세력은 독일과 프랑스이나 전후 형세로 동양에 적극적일 수 없으며, 영국은 독불 양국에 비해 전쟁의 피해가 적고 항상 동방진출에 관심이 많았다. 영국은 전쟁 후에 미국과 제휴하여 영일동맹을 파괴하는 동시에 미국의 신흥기예의 세력을 태평양 방면에 집중하게 하여, 일본의 충돌을 촉한 후, 서서히 어부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영국의 노골적인 극동정책이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미국과 소련의 충돌의 노정에 있어서 미일의 충돌이 전조가 될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충돌의 도화선은 중국문제이다. 중국의 무한한 부의 원천과 허다한 이권은 열강의 좋은 투자처이며 크게 발전할 땅이다. 그러나 중국은 민중의 각성이 철저히 못하고 1924년부터 세워진 친일적인 단기서 정부는 허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허약한 중국을 둘러싸고 미국, 소련, 영국이 대결할 때 태평양상의 풍우가 대작게 할 것이다.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풍운이 야기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10년을 주기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10년이 되는 1929년이 되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대한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송진우는 일본은 이제까지의 한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조선 문제를 해결하여 동양평화를 이룩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 일본은 영일동맹을 맺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과

거에 일본이 영일동맹을 맺어 동양의 동색민족을 억압하고 위협하여 현재의 사태를 야기하였다. 일본이 이러한 침략정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당시 같은 국제적 고립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우리를 유린압박하면서 일본 민족 전체의 의사가 아니요 수길, 사내배의 군벌 일파의 배은몰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반만년 역사적 배경과 2천만 민중의 총명을 가진 조선민족으로서는 철골의 한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조 학정보다는 총독 통치가 낫다는 그들의 말은 그들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드러낼 뿐이다. 지금 다시 이조의 학정이 재현된다면 우리는 개혁을 절규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배는 민족적 감정에 있어서 근본 뿌리가 다르다. 일본은 소련의 침략을 막고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자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일친선과 동양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5. 자유, 생존,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민족중심세력 형성 과제

우리의 포부는 자유, 생존,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조선민족의 포부는 어디까지든지 용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디까지든지 원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동양 각 민족에 대한 전통적 정책이자 방침이었다. 우리 민족은 북으로 중국의 인의를 존중히 하고 동으로 일본의 문화를 계발하여 항상 동양평화의 선구가 되며 또한 동양문화의 영도가 되었다.

우리는 서양의 자유정신과 과학문명을 애호하는 바이나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침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배척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적 정의와 인도적 평화의 유지 발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든지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민족적 의로운 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일본의 군벌 일파의 군국주의를 배척하는 바이며, 소련을 친근한다 하면 소련의 평등의 정신을 애호하는 바이다. 만일 동아의 풍운이 일어나 미일이 충돌할 때에는 미국의 세력 하에서 조선의 해방을 희망하며, 혹은 소일, 중일의 충돌을 예기하여 소련과 중국 양국의 원조 하에 민족의 자유를 촉망하나 이것은 결코 조선민족의 전통적 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또한 불허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자주적 정신이 있는 까닭이다. 자유는 어디까지나 자주적 행동이며 자력적 해결이 될 것이다. 결단코 타력적 원조와 사대적 사상의 지배와 용인을 불허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송진우는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 강대국의 충돌의 기회를 타서 독립을 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가 주체적으로 독립을 얻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는 일본과의 타협적 자치운동이 아니라 자치를 바탕으로 자력적인 독립을 목표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우리의 주의와 목표는 언제든지 자유, 생존, 평화의 3대사상에서 출발점을 삼을 것이요 결코 증오, 배척, 침략적 관념에 지배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로 민족적 자유를 해결할 것이요 둘째로 사회적 생존력을 보장할 것이요 셋째로 세계적 평화에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곧 조선민족의 응위한 포부가 될 것이요, 또한 원대한 경륜이 될 것이다.

이러한 포부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는 사상적 훈련과 민족적 단결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사상계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나 조사와 비교와 연구를 통해 정리통일된 사상 하에서 중심적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무대가 있어야 개인의 기량이 발휘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외세의 파동보다 타력의 원조보다, 중심세력의 확립과 자체 세력의 해결을 절규 역설한다.

송진우는 3·1운동의 실패 원인으로 민족중심세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족중심세력을 모으고 그들로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송진우가 1920년대 전반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민족중심세력의 형성이었다. 중심적 단결력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 1923년의 연정회이고 1925년의 조선사정연구회이며, 1926년의 제2차 연정회 조직이었다.

오늘 송진우의 태평양 회의 참석 전후의 그의 사상을 검토해 볼 때, 첫째로 그는 3·1운동의 정신인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경제적 생존권 보장과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다. 3·1운동의 주도세력을 교육을 통해 각성된 개인들로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부르주아지 시민계급으로 보았다. 이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갖춘 독립운동세력으로 보았으며,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추구하는 3·1운동의 근본정신이다. 둘째로 그와 함께 송진우는 당시의 세계정세를 상당히 폭넓게 조망하면서 민족의 장래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의 열강들보다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데, 특히 그들이 결국이 충돌할 것을 예견하였고, 그 전에 먼저 미국과 일본이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진로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민족의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족의 중심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동아일보 세력을 중심으로 연정회와 조선사정연구회 등 다양한 조직을 하였다. 앞으로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재들의 중심세력을 조직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고하 송진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본으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건설의 사상적 지주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